

부산민주언론시민연합이 선정한 2022년 4분기(10·11·12월) 좋은 보도·프로그램

■ 부산민주언론시민연합(이하 부산민언련)이 선정한 2022년 2분기 좋은 보도·프로그램을 발표합니다. 부산민언련은 지역현안에 대한 지역언론의 취재가 좋은 보도와 프로그램으로 이어질 때 건강한 지역사회로 나아갈 수 있다고 믿습니다. 이에 2020년부터 분기별 좋은 보도·프로그램을 선정해 지역민과 좋은 보도의 가치를 공유해 나가고 있습니다.

2022년 4분기 우리 사회에는 다양한 현안들이 있었습니다. 10.29 이태원 참사를 계기로 부산의 불꽃 축제를 비롯한 지역 행사 취소와 다중밀집 시설 점검 등이 이루어졌고, 시의회에서는 관련 조례의 제·개정 잇따르기도 했습니다. 또 핵폐기물 저장시설, 고리 2호기 수명 연장 등 원전에 관해 시민의 의견을 제대로 수렴하지 못한 한수원과 부산시에 대한 불만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또한 여전히 크고 작은 산업재해로 노동자가 사망하거나 다치는 일이 빈번히 발생했습니다.

4분기 좋은 보도·프로그램에는 위 현안을 비롯해 지역소멸, 사각지대 아동인권, 특혜입찰 감시 등을 고발한 13편이 후보작에 올랐습니다. 이 중에서 지역 현안 및 감시대상을 심층 보도해 문제를 구체적으로 드러내 공론화하고 개선방향을 제시해 언론의 감시 역할에 충실했던 보도와 프로그램이 높은 평가를 받았습니다. KBS부산 <부산신항보안공사 입찰특혜의혹 연속 보도>(강예슬 기자), 부산MBC <시사포커스IN_심층뉴스>(정은주, 조재형 기자 외), KNN <기획보도 산재은폐보고서>(김민욱 기자)가 2022년 2분기 좋은 보도·프로그램으로 선정되었습니다.

KBS부산의 <부산신항보안공사 입찰특혜의혹 연속 보도>는 부산신항보안공사가 특정 업체와 수의계약을 맺어 특혜를 준 의혹과 관리감독이 허술했던 점을 고발하여 이후 해수부의 특별 검사 및 국정감사에서의 해양수산부장관의 사과를 이끌어내고 대책 점검까지 보도하여 공고했던 지역 공사와 특정업체의 유착관계에 균열을 낸 보도였습니다.

부산MBC의 <시사포커스IN>은 ‘심층뉴스’ 코너를 통해 부산의 초고령화, 지역소멸과 같은 지역에서 주목해야할 현안에 대해 집중 취재하고 문제의 원인부터 해법까지 제시하여 지역사회에 공론화하려는 노력이 빛났던 프로그램이었습니다.

KNN의 <기획보도 산재은폐보고서>는 높은 산재 사망률에 비해 낮은 산재 재해율에 주목하여 산업재해를 은폐하는 실태와 현행 제도의 문제를 완성도 높게 보도하여 산업재해의 구조적 해결을 요구한 보도로 평가받았습니다.

좋은 보도·프로그램 선정은 되지 않았지만, 핵폐기물 해법과 고리2호기 수명연장 현안을 다룬 KBS부산의 특별기획 2부작 <아포리아>(12/9, 12/16, 박선자·이준석), <핵폐기물 임시저장...지역 국회의원 생각은?>(12/21, 황현규) 외 기사, 부산MBC <'계속운전' 고리2호기 공청회..."졸속">(11/16, 현지호), <고리2호기 '아수라장' 공청회, 부산시는 '뒷짐'>(12/2, 윤파란), 부산일보 <고리2호기 환경평가 '부실한 옛 미국 지침' 적용했다>(12/12, 이승훈·탁경륜) 외 기사는 모두 의미 있는 문제제기와 해법을 이끌어낸 보도로 평가 받았습니다. 원전문제는 앞으로 지속적으로 제기될 지역이슈임으로 지역언론의 지속적인 관심과 보도를 당부드립니다.

이번 분기별 좋은 보도·프로그램 보고서에서는 3편의 선정작에 대한 평가와 함께 후보작 10편에 대한 약평도 첨부합니다.

2022 4분기 좋은보도·프로그램 추천작 목록			
번호	매체	보도	기자
1	KBS부산	[특별기획] 사용후핵연료 관련 2부작 <아포리아>, <뉴스9> 관련보도	박선자, 이준석
2	KBS부산	부산신항보안공사 입찰특혜의혹 연속 보도	강예슬
3	KBS부산	핵폐기물 임시저장 등 원전이슈 관련 보도	황현규
4	부산MBC	고리2호기 수명연장 주민공청회 관련 지속 보도	윤파란 현지호
5	부산MBC	부산농심공장 팔끼임 사고 관련 보도	김유나
6	부산MBC	시사포커스IN 심층뉴스	정은주, 조재형, 박기홍, 조수완
7	KNN	[기획] 산재은폐보고서	김민욱
8	KNN	부산항 지하차도 공사장 흙탕물 침수 단독 보도	이민재
9	국제신문	[기획] 주민이 직접 설계하는 지방자치단체 구성	정유선
10	국제신문	[기획] 기후위기는 아동권리 위기	신심범
11	국제신문	[기획] 부랑인 시설 인권유린 증언	신심범
12	부산일보	[기획] 이방인이 된 아이들	손희문
13	부산일보	'고리 2호기 수명연장' 관련 보도	이승훈, 탁경륜

■ KBS부산_부산신항보안공사 입찰 특혜 의혹 연속보도

특혜 의혹 고발부터 사회적 공론화, 대책 점검까지
지역 공사와 기업의 유착관계에 균열을 내다



KBS부산은 2022년 10월 17일부터 6차례에 걸쳐 부산신항보안공사의 입찰 특혜 의혹을 보도했습니다. 부산신항보안공사의 경비, 보안 업체 입찰 과정에서의 특혜 의혹과 해양수산부의 부실한 관리·감독, 그로 인한 항만 보안의 허점 등을 고발하여 보안공사와 용역업체의 유착의혹을 지역사회에 알렸습니다.

1급 국가 중요시설인 만큼 항만의 보안과 관리는 계약부터 관리까지 철저해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산신항보안공사는 13년 간 보안과 경비 업무를 수의계약으로 한 업체에 맡겼으며, 지난 해 '특혜 시비' 뒤 경쟁입찰로 바꿨지만 규정까지 수정하여 기존업체와 재계약을 맺었습니다. 추가 취재로 입찰을 맡은 신항보안공사의 계약 담당자는 바로 특혜 의혹이 일고 있는 업체 출신임을 밝혀내기도 했습니다.

KBS부산의 보도 이후, 해양수산부의 특별 검사를 이끌어내고 국정감사에서 해양수산부 장관에게 책임을 묻도록 했다는 점에서 더욱 의미가 있는 보도였습니다. 또한 해수부 특별 검사를 토대로 한 대책의 실효성까지 점검하여 '특혜의혹 고발→사회적 공론화→대책 마련 및 점검'의 과정을 모두 보여준 보도로 평가받아 2022년 4분기 좋은보도로 선정되었습니다.

[관련 기사]

<부산신항보안공사의 수상한 '경쟁 입찰'...특정 업체 몰아주기?>(10/17, 강예슬)
<https://news.kbs.co.kr/news/view.do?ncd=5580397>

<특혜 의혹 업체 출신이 '계약담당'...감독 손놓은 해양수산부>(10/18, 강예슬)
<https://news.kbs.co.kr/news/view.do?ncd=5581389>

<민간에 맡겨진 부산신항...항만 보안 '비상'>(10/19, 강예슬)
<https://news.kbs.co.kr/news/view.do?ncd=5582358>

<'특혜 입찰 의혹' 부산신항보안공사 특별 검사>(10/20, 단신)

<입찰 특혜 의혹·보안 부실...해수부 '잘못 시인'>(10/21, 강예슬)
<https://news.kbs.co.kr/news/view.do?ncd=5584168>

<부산신항보안공사 특별검사 '실효성 의문'>(10/27, 강예슬)
<https://news.kbs.co.kr/news/view.do?ncd=5588663>

■ 부산MBC_시사포커스IN 심층뉴스

시사포커스IN, 주목해야 할 지역 이슈를
 훑아보고 따져보고 대안까지 제시한 노력 돋보였다



부산MBC의 대표적 시사프로그램으로 자리 잡고 있는 <시사포커스IN>은 탐사·심층 뉴스로 지역의 여러 현안을 심도 있게 취재하여 지역민에게 해당 이슈의 문제점과 대책을 알리고 있습니다. 특히 2022년 4분기에는 부산의 근본적인 문제인 ‘초고령화’와 ‘지역소멸’, ‘청년의 탈부산’ 등의 문제를 집중 취재했습니다.

11월 17일 ‘존엄한 죽음, 갈 곳이 없다’ 편에서는 부산이 초고령 도시이지만, 존엄한 죽음을 준비하는 호스피스 기관이 부족한 부산의 현실을 짚었고, 12월 8일부터 연말기획으로 마련된 ‘균형발전?..이대로면 소멸!’ 4편에서는 인구소멸의 위기에 선 부산의 현 주소와 국가균형발전 정책인 ‘지방소멸대응기금’, ‘혁신도시 조성사업’의 문제점, 인구소멸의 핵심인 청년이 부산을 떠나는 이유를 짚어봤습니다. 또한 부산시민을 대상으로 한 여론조사 결과 분석과 타 도시 사례를 통해 다양한 해법을 제시하기도 했습니다.

부산MBC의 <시사포커스IN_심층뉴스>는 지역에서 주목해야할 현안에 대해 집중 취재하고 문제의 원인부터 해법까지 제시하여 지역사회에 공론화하려는 노력이 돋보여 2022년 4분기 좋은 프로그램으로 선정합니다.

[4분기 대표 프로그램 목록]

<에코델타시티, 기름*중금속 토양오염 확인!>(11/3, 송광모)

<https://youtu.be/6ddlsb32pLA>

<존엄한 죽음, 갈 곳이 없다>(11/17, 박기홍 PD)

<https://youtu.be/WPheXMzDbAo>

[연말 기획]

1편 <균형발전?..이대로면 소멸!>(12/8, 정은주)

<https://youtu.be/lSyE8lm-CjY>

2편 <10조 들인 혁신도시의 딜레마>(12/15, 조재형)

https://youtu.be/eRJTwpVKL_I

3편 <사라진 10만 부산 청년...어디로?>(12/22, 조재형)

https://youtu.be/_i3HqAvze_Y

4편 [심층 토론] <균형발전? 이대로면 소멸!>(12/29)

<https://youtu.be/yr02TuyLxz4>

■ KNN_[기획] 산재은폐보고서

한 20대 노동자의 묻혔던 죽음을 계기로
산업재해 은폐의 원인과 제도적 해결을 요구한 KNN



KNN의 <산재은폐보고서> 기획보도는 높은 산재 사망률에 비해, 비교적 낮은 산재 재해율에 주목하여 산업재해를 숨기는 실태와 경찰·노동청·정부 등 관련 행정기관의 미온적 태도 그리고 현행 제도의 문제를 6차례에 걸쳐 완성도 높게 보도하였습니다.

먼저 2021년 산재 사고로 사망한 20대 노동자의 산재 은폐 시도와 책임당국의 허술한 대응 등을 상세히 알렸고, 조선소 하청업체 노동자들의 산재 신고를 가로막는 괴롭힘 실태와 산재 신청을 어렵게 하는 원청-하청 계약문제 등을 짚었습니다. 또 산재 신청건수가 적어 산재기금은 쌓여있는 반면, 건강보험으로 지급되는 현실은 외면하고 대기업에 산재보험료 감면 특혜를 주는 정부 태도를 비판하였습니다. 끝으로 산재신고 규정에 대한 제도개선을 제안했습니다.

한 20대 노동자의 죽음에서 드러난 산재 은폐 문제를 알리면서, 개인의 문제가 아닌 구조적 문제까지 확장해 심각성을 드러내고 정치권 논의로 제도적 개선이 필요함을 강조했습니다. 이에 2022년 4분기 좋은 보도로 선정합니다.

[관련 기사]

<국내 산재은폐율 66%…'은폐를 파헤친다'>(11/10, 김민욱)

<http://www.knn.co.kr/266849>

<산재 은폐에 묻힌 20대 노동자의 죽음>(11/11, 김민욱)

<http://www.knn.co.kr/266915>

<산업재해 신고, 보복이 두려워서 '못 한다'>(11/14, 김민욱)

<http://www.knn.co.kr/266976>

<산재 은폐, "정부·수사기관 책임도 크다">(11/16, 김민욱)

<http://www.knn.co.kr/267122>

<산재 은폐 눈 감은 정부, 도대체 왜?>(11/18, 김민욱)

<http://www.knn.co.kr/267224>

<산업재해 은폐, 국회에서 논의 시작>(12/5, 김민욱)

<http://www.knn.co.kr/267987>

■ 2022년 4분기 좋은 보도·프로그램 후보작 약평

KBS부산의 특별기획 사용후핵연료 관련 2부작 <아포리아>, <뉴스9> 관련보도는 사용후핵 연료문제를 둘러싼 갈등의 역사를 돌아보고, 영구처분장이 갖춰야할 기반조건과 기술은 무엇 인지를 핀란드 온칼로, 스웨덴 포스마크 등의 해외 사례를 통해 소개했습니다. 원전 수명연 장, 임시저장시설 건설 등 현재 쟁점 보다는 본질적 해결을 위한 '영구처분장' 해법에 집중해 시사점을 명료하게 전달했습니다.

[대표 기사]

<아포리아> 2부 '미래를 위한 약속' (12/16, 박선자·이준석)

<https://www.youtube.com/watch?v=HtKCTRJf-4>

KBS부산의 핵폐기물 임시저장 등 '원전이슈' 관련 보도는 부산과 울산 24명 국회의원에 원전 관련 문제를 직접 질의하여 핵폐기물 임시저장, 고준위방사선특별법 3개안, 노후원전 수명연 장에 대한 입장과 한수원 공청회에 대한 입장에 대한 국회의원별 답변을 구체적으로 전달했 습니다. 국민을 대의하는 국회의원에게 참여한 지역 이슈인 원전문제를 질의함으로써 주민의 견 수렴과정 개선을 정치적으로 풀어가야함을 드러냈습니다.

[대표 기사]

<핵폐기물 임시 저장...지역 국회의원 생각은?>(12/21, 황현규)

<https://news.kbs.co.kr/news/view.do?ncd=5810208>

부산MBC '고리2호기 수명연장 주민공청회 관련 지속 보도'는 고리2호기 수명연장 방사선환 경영향평가서 공청회, 한수원의 졸속적 강행 문제점을 짚었습니다. 단 5차례 주민공청회 개 최로 '속전속결' 추진 '부실졸속' 공청회라는 비판의견과 소극적인 부산시 대응도 지적하여 부 산시의 적극적 책임성 필요 부각하고 시민사회의 입장을 지속적으로 보도했습니다.

[대표 기사]

<고리2호기 '아수라장' 공청회, 부산시는 '뒷짐'>(12/2, 윤파란)

<https://busanmbc.co.kr/article/TWXE54PXcEk0KZqPC>

부산MBC '부산농심공장 팔끼임 사고 관련 보도'는 농심의 부산 공장에서 20대 직원이 기계 에 끼어 중상을 입는 사고발생 했지만, 이전에도 비슷한 사고가 지속적으로 발생했음에도 중 대재해가 아니라는 이유로 노동부에 신고조차 하지 않음을 취재로 확인했습니다. 추가보도를 통해 비슷한 사고가 발생할 위험요소(위험한 순간 기계 멈출 시, 욕설 등)가 그대로 있는 점 도 고발했습니다.

[대표 기사]

<사고 잇달았는데 무재해 1200일?... 농심 산재 '은폐' 의혹>(11/9, 김유나)

<https://busanmbc.co.kr/article/oth9uMnlKR9OJz4>

KNN의 '부산항 지하차도 공사장 흙탕물 침수 단독 보도'는 부산 북항 지하차도 공사현장에 바닷물이 쏟아지면서 일부 구간의 공사가 중단된 사실을 단독 보도했습니다. 시공사는 사고 발생 나흘 후에야 보고해 사고은폐 의혹 가능성과 바닷물이 유입되면서 토사가 유출되어 싱크홀이 발생할 수 있음을 지적했습니다. 부산시와 부산해수청으로부터 차수를 완벽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을 찾겠다는 답을 이끌어내기도 했습니다.

[대표 기사]

<북항 지하차도 침수 사고, 은폐 의혹>(11/2, 이민재)

<http://www.knn.co.kr/266396>

국제신문의 '주민이 직접 설계하는 지방자치단체 구성' 기획보도는 현재 지방의회는 어떠한 목표를 가지고 어떠한 일을 하는지, 주민의 입장에서 지방의회는 어떠한 역할을 해야하는지 등을 살펴보고 해외사례를 제시했습니다. 시민, 주민 주도의 지방정치가 되기 위한 의제를 지속적으로 발굴하여 지역사회 공론화에 노력한 보도로 평가받았습니다.

[대표 기사]

불신 큰 지방의회 권한 확대? 다수당 견제책 등 선결돼야(10/13 ,정유선)

<http://www.kookje.co.kr/news2011/asp/newsbody.asp?code=0100&key=20221014.22004001191&kid=112220>

국제신문의 '기후위기는 아동권리 위기'보도는 국제신문과 초록우산 어린이재단이 공동으로 기획한 보도로 기후위기는 결국 아동·청소년이 평온한 일상을 보낼 권리까지 침해하며, 사회적 권리뿐만 아니라 개인의 건강권에도 위기를 가져올 것이라 전망하는 등 기후위기가 아동과 청소년에 미칠 영향을 자세하게 보도했습니다. 당사자의 기후위기에 대한 여론조사, 전문가 의견, 토론회 보도를 통해 기후위기가 가로막은 아동권리에 대해 지역사회의 새로운 화두를 던져주었습니다.

[대표 기사]

<극심한 더위·식수 오염...일상 위협하는 기후변화 느껴져요>(10/6, 신심범)

<http://www.kookje.co.kr/news2011/asp/newsbody.asp?code=0300&key=20221007.22010000775&kid=132317>

국제신문의 '부랑인 시설 인권유린 증언' 기획보도는 부산의 옛 부랑인 시설에서 인권유린을 당한 당사자를 직접 만나 당시의 참상을 생생히 기록으로 남겼습니다. 당사자와 더불어 당시 목격자 증언 및 연구자료를 토대로 부랑자 시설의 인권유린뿐만 아니라 횡령 등 불법적 행위, 부산시의 무책임한 단속도 다시 지역사회에 환기시키는 역할을 했습니다.

[대표 기사]

<굶고 맞아 죽은 아이들 '똥통' 늪에 버려졌다>(11/7, 신심범)

<http://www.kookje.co.kr/news2011/asp/newsbody.asp?code=2500&key=20221106.99006001320>

부산일보의 ‘이방인이 된 아이들’ 기획보도는 중도입국 아동들의 현실을 당사자 입장에서 전하고, 부산의 현황과 제도 개선점 등을 제시했습니다. 아직 개념이 다소 생소해 사회적 관심과 지원의 사각지대에 있는 ‘중도입국 아동·청소년’을 알리고 맞춤형 대책의 필요성 등 전문가 구체적인 정책적 대안 제시하여 좋은보도로 평가받았습니다.

[대표 기사]

〈“엄마 따라 중국에서 온 나 1년 만에 투명인간 됐어요”〉(12/28, 손희문)

<https://www.busan.com/view/busan/view.php?code=2022122718255053841>

부산일보의 ‘고리 2호기 수명연장 관련 보도는 고리 2호기의 방사선환경영향평가에서 중대 사고가 빠진 구식 미국지침서를 준용한 정황을 보도하였습니다. 한수원은 이 지침에 따라 고리2호기가 안전하다고 주장하며 수명연장을 추진하고 있는 상황인데, 선진국 수준의 강화된 안전 기준이 적용되지 않았음을 밝혀 수명연장 논란에 새로운 쟁점을 지역사회에 알렸습니다.

[대표 기사]

〈고리2호기 환경평가 ‘부실한 옛 미국지침’ 적용〉(12/12, 이승훈·탁경륜)

<https://www.busan.com/view/busan/view.php?code=2022121118402221242>